

보사연, 청년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연구진·전문가 워크숍 개최 -국내·외 영향평가 분석을 바탕으로 청년영향평가의 구체적 실행 방안 논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 이하 보사연)은 9월 30일(수) 오전 10시부터 세종중앙타운 8층 샘 중회의실A에서 청년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를 위한 ‘제1차 연구진·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 이번 워크숍은 청년영향평가 도입을 위해 여러 정책 영역에서 영향평가 실무를 담당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향후 청년영향평가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워크숍은 오전 세션에 ▲‘청년영향평가의 필요성과 범위’(조성은 보사연 연구위원) ▲인구영향평가의 주요 내용과 함의(이상림 서울대 보건대 교수) ▲노인영향평가의 진행 상황(박종서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 오후 세션에서는 ▲고용영향평가의 주요 내용과 함의(전우성 노동연 평가기획팀장) ▲성별영향평가의 주요 내용과 함의(조영주 여성정책연 연구위원) ▲청년영향평가 도입의 주요 쟁점(조성은 보사연 연구위원)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내 주요 사례로 고용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의 주요 내용과 함의를 비교하여 청년영향평가 도입 시 쟁점이 되는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절차와 평가 수행체계 등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 신영석 원장은 “복잡성이 높아지고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환경에서 청년들이 부딪치는 어려움이 늘고 있다.”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청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평가 방안이 마련되어 향후 청년 삶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청년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제1차 연구진·전문가 워크숍」 웹 포스터 1부. 끝.